

美·中 11월 정상회담...북핵 문제 등 집중 논의

베이징 개최 APEC 기간에...국무장관·무역부 등 참석 북한 대화 재개 여부·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될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기간에 '장시간' 양자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고위관료회의(SOM)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왕(중국명 王曉岷) 주중 미국 대사관 공사는 25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인터넷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예상 주제는 한반도 문제와 미중 경제협력 발전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공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를 정해 시 주석과 심도 있는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캘리포니아 회담 때와 비슷하게 양국 정상은 긴 시간을 할애해 개인적 교류와 소통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공사는 "신형대국관계를 추진하는 미중 양국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진 정상회담의 효과가 매우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양국 정상은 회담 장소는 베이징 화이러우(懷柔) 부근의 모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파격적인 방식으로 첫 정상회담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왕 공사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미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최소 몇시간 이상 '릴레이'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이 크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올해 초 북한의 추가핵실험 위협에 이어 북한의 위협·경고 메시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한미와 중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왕 공사는 "이번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미국무역

대표부(USTR) 대표의 참석이 확정됐다"면서 "상무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은 참석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APEC 기간 미국은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자원, 여성기업가, 인터넷, 정신·심리건강,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협력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히로시마 대규모 산사태...50명 숨져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지난 20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일본 경찰과 소방관, 자위대원 등 3000여명이 산사태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산사태로 50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는 38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중국 우주까지 군사력 뻗친다...2020년 '우주부대' 창설 추진

日요미우리 "중국 군 통합 강화" 육·해·공·제2포병 이어 제5군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육·해·공군과 제2포병(전략미사일 부대) 등 4군을 지휘할 '중앙합동작전지휘부'를 최근 신설하는 등 군의 통합 운용을 강화하고 '우주부대'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합동작전지휘부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설치됐다고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관리하는 난징(南京)군구에는 중앙합동작전지휘부 직속의 동중국해합동작전지휘부를 설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작년 11월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4군의 작전행동을 지휘할 동중국해합동작전지휘부가 우선 설치된 것이며 앞으로 남중국해, 황해(서해)를 각각 담당하도록 광저우(廣州)와 지난(濟南)에도 지휘부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7월 동중국해, 남중국해, 황해, 보하이(渤海·발해) 등 4개 해역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앙합

동작전지휘부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7대군구(大軍區) 체제를 유사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5대전구(大戰區)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난징, 광저우, 지난을 먼저 전구로 바꿀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군에 3개 항공전투군(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투기 등으로 구성되는 해군 항공병, 상륙 작전을 담당하는 육전대(해병대), 잠수함부대 등의 지휘계통 강화와 장비 확충에 힘쓰고 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2020년 무렵 발족을 목표로 '항천(航天·우주) 부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천부대가 공군의 지휘하에 들어가지 않고 제2포병에 이어 제5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시진핑 주석이 공군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하늘과 우주과 하나가 됐다"며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강한 공군의 건설이 주권,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빠질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기자 참수한 IS영국인 대원은 래퍼 출신 23살 압텔 바리 추정

선데이타임스 유력용자 보도 영터 타임스 "동영상은 연출"

영국 정보기관이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것으로 보이는 영국인 '존'의 신원을 거의 확인했다고 워싱턴주주 영국대사 피터 웨스트머콧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웨스트머콧 대사는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본국에 있는 동료로부터 폴리 기사를 살해했다는 존의 정체를 거의 파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외에도 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웨스트머콧 대사는 "우리는 존의 실체를 알리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목소리 식별을 비롯한 정밀기술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이날 익명의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영국 국내정보국(MI5)과 국외정보국(MI6)이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의 영국인 대원 '존'의 인적사항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래퍼 출신인 압텔-마제드 압텔 바리(23)라고 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참수 동영상에 등장하는 IS 대원과 억양, 체구, 피부색이 비슷해 수사 당국이 주목한 인물이다.
런던 서부 메이다베일의 부작출 출신인 바리는 시리아에서 절린 머리를 들고 찍

은 사진을 최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존'은 폴리를 참수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에서 영국식 영어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정적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신문 기고문에 폴리를 참수한 영국인 대원이 영국인이 지지하는 모든 것을 "모조리 빼앗았다"며 "극악무도한 일의 범인을 영국이 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기자 제임스 폴리(40)의 참수 동영상은 연출된 것이며 실제 살해 행위는 카메라를 멈춘 뒤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더 타임스는 과학수사 전문업체에 영상 분석을 직접 의뢰한 결과 영상에서 카메라 속임수와 편집의 흔적을 찾았으며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지난 19일 영국 출신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추정되는 복면의 인물이 폴리를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복면의 인물은 무릎 꿇은 폴리의 목에 칼을 갖다 댄 뒤 최소 여섯차례 베는 동작을 한다. 그 뒤 화면이 바뀌고 폴리의 몸과 머리가 분리된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더타임스는 영상 분석 결과, 폴리의 참수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바뀔 때까지 화면 속에서 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美캘리포니아 북부 6.0 강진 발생

120명 부상 1조원 재산 피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베이 지역에서 24일(현지시간) 새벽 최근 25년 사이 최대인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으로 최소 120명이 다치고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과 도로 등이 파손되며 최대 10억 달러(1조원) 규모의 재산피해 역시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북동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날 오전 3시 20분 44초에 일어났다.

이번 지진의 강도는 약 60명이 숨진 1989년 규모 6.9의 지진 이후 최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 120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입원 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중 중상자는 3명이며 떨어지는 벽난로 조각에 맞아 다친 어린이 역

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으로 지역 일대 건물들의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 등이 파손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 무릎 높이까지 건물 잔해가 쌓인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비상사태를 선포된 나파시에서는 와이너리(포도주 양조장)에서 와인통과 와인병이 떨어져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광역권 곳곳에서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고 도로 신호등이 꺼졌다. 현재까지도 약 1만 가구가 정전, 600가구가 단수를 겪고 있다. 나파 카운티 법원 인근 이동식 주택단지에서는 가스 파이프에 불이 붙었지만 지진으로 수도가 끊긴 탓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손을 쓰지 못했다.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10억 달러(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0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함)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 대산프리모